

2021년 2월 23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나스닥, 금리 및 규제, 비트코인 여파로 급락

비트코인, 엘런이 투기성 높은 자산이라고 주장하자 17%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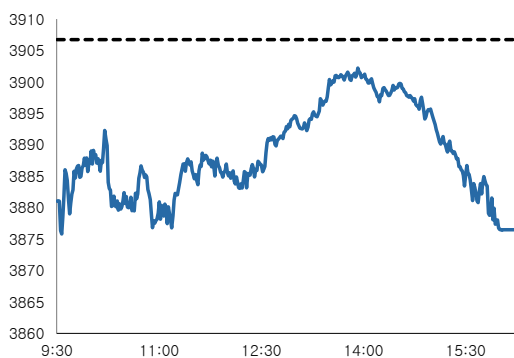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①자본이득세 인상 ②비트코인 투기 경고 ③추가 부양책

미 증시는 엘런 재무장관의 자본이득세 인상을 시사하자 하락 출발. 여기에 비트코인이 장중 17% 급락하는 등 변동성을 키우자 관련 종목군이 약세를 보인 점도 하락 요인. 더불어 국채금리 상승도 기술주 약세를 부추김. 다만, 금리 영향으로 금융주가 상승하고, 영국의 경제 봉쇄 해제 언급과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는 업종 차별화 속 다우는 상승 했으나 나스닥은 급락(다우 +0.09%, 나스닥 -2.46%, S&P500 -0.77%, 러셀 2000 -0.69%)

엘런 재무장관이 뉴욕타임스가 주최한 컨퍼런스에 참여해 경제 전반에 대해 발언. 이날 엘런 장관은 ①자본이득세 인상 ②비트코인 투기 경고 ③추가 부양책 등을 언급. 먼저 세금 관련 발언인데 엘런 장관은 주식, 채권 거래시 발생하는 자본 이득세 인상에 대해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 이는 미 금융시장에서의 자본 이탈 가능성을 높여 투자심리 위축. 더불어 최근 게임스탑 관련 의회 청문회에서 논의된 잠재적인 규제 조치와 관련한 보고서를 증권 거래위원회가 준비중이라고 언급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강화 가능성을 높인 점도 투자 심리 위축 요인. 특히 법인세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자 관련 수혜 종목들인 대형 기술주에 대한 매물이 출회된 점도 부담

한편, 엘런 장관은 비트코인을 투기성이 높은 자산이라고 규정하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 특히 비효율적인 거래 방식이며 금융 안정성, 돈세탁, 불법 금융 등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많다고 주장. 이와 함께 머스크가 가격이 높다고 주장하자 비트코인이 장중 17% 넘게 급락. 이 여파로 테슬라(-8.55%)와 반도체 업종 약세로 지수 하락을 부추김. 추가 부양책과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 재무장관의 핵심 임무는 미국의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경제의 신속한 정상화 필요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면 재정 비용이 발생 한다고 주장. 더불어 부채 수준은 2008 년 금융위기 때보다 높지만 이자율이 낮아 GDP 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동일 하다며 예전보다 더 많은 재정 부양책을 사용 할 수 있다고 언급. 이 발언으로 적극적인 부양책 기조를 확인하자 코로나 피해 업종인 여행, 레저, 에너지 등이 상승. 특히 영국의 경제 봉쇄 해제 언급도 상승 요인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3,079.75	-0.90	홍콩항셍	30,319.83	-1.06
KOSDAQ	954.29	-1.12	영국	6,612.24	-0.18
DOW	31,521.69	+0.09	독일	13,950.04	-0.31
NASDAQ	13,533.05	-2.46	프랑스	5,767.44	-0.11
S&P 500	3,876.50	-0.77	스페인	8,112.20	-0.48
상하이종합	3,642.45	-1.45	그리스	781.99	+0.07
일본	30,156.03	+0.46	이탈리아	23,009.18	-0.5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비트코인, 태양광, 반도체, 대형 기술주 부진 Vs. 금융, 에너지, 레저, 산업재 강세
테슬라(-8.55%)는 모델 Y 기본 버전 판매 중단 소식과 비트코인이 급락하자 하락했다. 올트글로벌(-19.85%), 라이엇 블록체인(-9.21%) 등 채굴 업종도 급락했다. 더불어 금리 상승에 따른 성장주 중심의 매물이 집중되자 테슬라를 비롯한 니오(-7.92%), Xpeng(-7.05%) 등 여타 전기차 관련 종목과 퍼스트솔라(-4.78%), 선파워(-11.20%) 등 태양광 업종, 릴레이(-10.00%) 등 대마초 관련주 등 테마주들의 낙폭이 컸다. 비트코인이 급락하자 페이팔(-4.56%)은 물론 NVIDIA(-3.82%), 마이크론(-5.15%), TI(-2.95%) 등 반도체 업종이 부진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77% 하락했다. MS(-2.68%), 아마존(-2.13%), 애플(-2.98%) 등 대형 기술주는 규제 강화 이슈가 부각되자 하락했다.

반면, JP모건(+0.94%), BOA(+1.77%) 등 금융주는 국채 금리 상승에 힘입어 상승 했다. 엑손모빌(+3.69%), 코노코필립스(+5.08%)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가 미국 생산 재개 지연 기대 속 강세를 보이자 상승 했다. 디즈니(+4.42%), 부킹닷컴(+2.48%), 카니발(+5.61%), 힐튼(+2.61%) 등 여행, 레저 등은 추가 부양책 기대 및 영국의 경제 봉쇄 해제 언급 등으로 강세를 보였다. 델타항공(++4.53%) 등 항공주는 올해들어 공항 이용객수 최고를 기록한 점이 부각되며 상승 했다. 캐터필라(+3.88%) 등 산업재는 물론 프리포트맥모란(+1.57%) 등 광산업종, US스틸(+5.42%) 등 철강업종은 인프라 투자 관련 강세를 이어갔다.

주요 ETF

ETF 종류	동락률	ETF 종류	동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3.08%	대형 가치주 ETF(IVE)	+0.66%
에너지섹터 ETF(OIH)	+4.54%	중형 가치주 ETF(IWS)	+0.26%
소매업체 ETF(XRT)	+0.09%	소형 가치주 ETF(IWN)	+1.18%
금융섹터 ETF(XLF)	+0.93%	대형 성장주 ETF(VUG)	-2.24%
기술섹터 ETF(XLK)	-2.21%	중형 성장주 ETF(IWP)	-3.19%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3.42%	소형 성장주 ETF(IWO)	-2.15%
인터넷업체 ETF(FDN)	-3.29%	배당주 ETF(DVY)	+1.08%
리츠업체 ETF(XLRE)	+0.58%	신흥국 고배당 ETF(DEM)	-1.03%
주택건설업체 ETF(XHB)	-1.49%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1.77%
바이오섹터 ETF(IBB)	-2.51%	미국 국채 ETF(IEF)	-0.16%
헬스케어 ETF(XLV)	-0.24%	하이일드 ETF(JNK)	-0.33%
곡물 ETF(DBA)	+1.41%	물가연동채 ETF(TIP)	-0.01%
반도체 ETF(SMH)	-3.66%	Long/short ETF(BTAL)	-2.38%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357.22	+3.47%	+6.64%	+12.50%
소재	472.99	+0.38%	+1.27%	+0.97%
산업재	770.71	+0.30%	+1.05%	+2.98%
경기소비재	1,331.88	-2.15%	-2.68%	-2.65%
필수소비재	668.04	+0.08%	-1.06%	-0.25%
헬스케어	1,328.53	-0.30%	-2.74%	-3.09%
금융	542.84	+0.98%	+3.81%	+7.68%
IT	2,333.91	-2.26%	-4.13%	-0.22%
커뮤니케이션	234.59	-0.33%	-1.25%	+3.74%
유틸리티	305.02	-1.94%	-3.89%	-4.59%
부동산	238.31	+0.54%	-0.24%	+3.9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업종 차별화 속 반발 매수세 유입 기대

MSCI 한국 지수 ETF 는 2.60% MSCI 신흥 지수 ETF 는 2.94% 하락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12.67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중국의 인민은행이 춘절 이후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흡수하자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했다. 일부에서는 올해 여름에 인민은행이 디레버리징을 위한 금리인상을 언급하는 등 긴축 이슈가 투자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비트코인 변동성 확대에 인한 관련 종목은 물론 금리 상승과 엘런 재무장관의 세금 관련 발언 등으로 부진한 점은 투자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77% 하락한 점도 부담이다.

한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지표 개선 및 추가 부양책 기대 속 한 때 1.4% 가까이 상승 했으나, 오늘 저녁에 있을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기대하고 있어 투자심리의 지속적인 위축 가능성은 제한 된다. 지난 10 일 파월은 경기 회복을 위해 인내심 있는 통화정책을 시사하며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다고 발언했다. 오늘 있을 상원 청문회에서도 이러한 발언을 유지 할 것이라는 점에서 반발 매수세 유입 기대가 높다.

물론 전일 하락 요인인 인민은행의 유동성 흡수 여부도 중요하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오전 10시 이후 인민은행의 발표에 따른 변화를 보인 후 장 마감을 앞두고 파월 의장의 발언을 기대하며 반등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전일 중국과 미국, 유럽 등의 특징처럼 업종 차별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경기 선행지수 개선

1 월 미국 경기 선행지수는 전월 대비 0.5% 상승해 지난달 발표치(mom +0.4%)는 물론 예상(mom +0.3%)을 상회했다. 컨퍼런스 보드는 관련해서 작년 연말 이후 개선세가 둔화되고 있었으나 1 월 발표는 양호한 결과를 내놓아 경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1 월 시카고 연은 국가활동지수는 전월(0.41)이나 예상(0.40)을 상회한 0.66 으로 발표되었다. 경기 침체 후 0.7 을 넘어서면 침체의 종료를 이야기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발표였다. 3 개월 평균은 전월(0.60) 보다 둔화된 0.47 로 발표되었다.

2 월 달러스 연은 지수는 전월(7.0)이나 예상(6.7)을 상회한 17.2 로 발표되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신규주주(6.3→13.0), 생산지수(4.6→19.9), 설비가동률(9.2→16.5) 등이 급등 했다. 이러한 결과는 유가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추정한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생산 재개 지연 기대 속 4.1% 급등

국제유가는 텍사스 지역 겨울 폭풍으로 하루 최대 400 만 배럴 원유 생산이 중단되었는데 기후가 정상화 되었으나 생산 재개는 최소 2 주가 걸릴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했다. 한편, OPEC+ 회담을 앞두고 사우디가 사회적 손익분기 수준인 약 80 달러 까지는 가격 상승을 유지 할 것이라는 분석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경제지표 호전에도 불구하고 유럽 지역이 경제 봉쇄 후 해제에 따른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영국의 경제 봉쇄가 6 월에는 해제 될 것이라고 주장하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역외 위안화는 달러 대비 소폭 약세를 보인 가운데 뉴질랜드 달러는 신용등급 상향 소식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는 등 개별 국가 이슈에 따라 변화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경제지표 개선에 힘입어 한 때 10 년물 금리가 1.4%에 근접했었다. 그러나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가 “인플레 기대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를 보지 못했다” 라고 주장하고 주식 시장이 약세를 보이자 금리 상승분이 일부 반환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로버트 카플란 달라스 연은 총재가 “성장 전망이 개선되고 있어 금리 상승은 놀랍지 않다” 라며 예상 보다 더 빠른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자 재차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을 기다리며 오후에는 변화가 제한되었다.

금은 비트코인 변동성이 확대되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유입되며 1.7% 상승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인프라 투자 기대와 달러 약세로 상승했다. 대두, 옥수수 등 곡물도 달러 약세 및 중국 수입 증가 기대, 미 농무부의 옥수수, 대두 재배 면적이 타이트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상승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13% 상승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1.70	+4.12	+3.91	Dollar Index	90.115	-0.28	-0.40
브렌트유	65.24	+3.70	+3.06	EUR/USD	1.2155	+0.30	+0.21
금	1,808.40	+1.74	-0.81	USD/JPY	105.07	-0.36	-0.29
은	28.131	+3.07	+2.79	GBP/USD	1.4063	+0.34	+1.15
알루미늄	2,166.50	+1.64	+3.98	USD/CHF	0.8964	+0.01	+0.69
전기동	9,097.00	+2.10	+8.38	AUD/USD	0.7917	+0.61	+1.75
아연	2,899.00	+0.62	+1.99	USD/CAD	1.2616	+0.01	-0.18
옥수수	550.50	+1.62	+2.61	USD/BRL	5.4591	+1.33	+1.37
밀	669.75	+2.17	+4.44	USD/CNH	6.4673	+0.20	+0.96
대두	1,387.50	+0.54	+1.19	USD/KRW	1110.40	+0.41	+0.82
커피	134.95	+4.49	+9.67	USD/KRW NDF 1M	1112.67	+0.56	+0.94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369	+3.23	+16.05	스페인	0.324	-3.00	+6.60
한국	1.930	+5.30	+6.50	포르투갈	0.216	-3.40	+6.80
일본	0.125	+1.60	+4.40	그리스	0.881	-0.50	+11.30
독일	-0.339	-3.40	+4.20	이탈리아	0.596	-2.60	+7.0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